

Pat Metheny 연구

김민근¹, 조태선^{2*}

¹DMS 뮤직 아카데미,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A Study of Pat Metheny

Min-Geun Kim¹, Tae-Seon Cho^{2*}

¹DMS Music Academy

²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팻 메스니는 1976년도에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장르를 재즈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으로 대중에게 어필하였다. 50여장에 이르는 그의 앨범들은 그래미상(Grammy Award)를 20차례나 수상하였고, ‘골드 디스크(Gold Disc)’ 상을 3차례나 수상할 정도로 ‘예술성’과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음악은 단순히 재즈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기초 화성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코드에서 사용하는 스케일과 마이너 코드에서 사용하는 스케일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메이저 코드에서는 Ionian Scale이나 Lydian 스케일을 주로 사용하고, 마이너 코드일 때는 Dorian Scale이나 Phrygian Scale, 그리고 Aeolian Scale을 주로 사용한다. 또 m7b5 코드 일 때는 당연히 Locrian Scal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팻 메스니의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메이저 코드일 때 Dorian Scale을 사용한다던지, 또 마이너 코드일 때 Lyd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만들었다. 그리고 도미넌트 코드 일 때 사용하는 여섯 가지 스케일도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의외로 Dorian Scale이나 Lydian Scale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마디에서는 Ionian Scale과 Aeolian Scale을 같이 사용하여 Lick을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마디의 전체적인 느낌이 메이저의 밝은 느낌과 마이너의 어둡고 쓸쓸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또 블루스의 열두 마디 패턴을 빌려와서 사용하면서 블루스 스케일은 사용하지 않고 Ionian Scale과 Lydian Scale, Mixo-Lydian Scale을 주로 사용하여 Lick을 만드는 스타일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Abstract Pat Metheny debuted in 1976 and attracted the public beyond his genre in jazz by committing experimental and various music. His 50 albums have been recognized with musicality and artistry by winning 20 Grammy Awards and being awarded a Gold Disc 3 times. Therefore, his music cannot be expressed merely with the single word 'jazz'. In basic harmonics, there are distinct chords between major chord and minor chord. For example, Ionian Scale and Lydian Scale are used in major chord and Dorian Scale, Phrygian Scale, and Aeolian Scale are used in minor chord. It is also common to use m7b5 chord in Locrian Scale. However, after analyzing Pat Metheny's scale, he made Lick using Dorian Scale in major chord or using Lydian Scale in minor chord. In Dominant chord that can use various six scales, he often used Dorian Scale or Lydian Scale surprisingly. In some measures, he made Lick using Ionian Scale and Lydian Scale. In this case, since the whole atmosphere of that measure simultaneously expresses both the bright feeling of major and the lonely feeling of minor, it arouses a very special atmosphere. In addition, he brought 12-measure pattern and made Lick not using blues scale but often using Ionian Scale, Lydian Scale, and Mixo-Lydian Scale.

Keywords : Jazz Guitarist, Improvisation, Guiatr, Solo, Playing Technique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Tel: +82-10-2201-9686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October 12, 2016

Revised November 4,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1. 서론

팻 메스니는 1976년도에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다. 50여 장에 이르는 그의 앨범들은 그라미상(Grammy Award)을 20차례나 수상하였고, ‘골드 디스크(Gold Disc)’ 상을 3차례나 수상할 정도로 ‘예술성’과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음악은 단순히 재즈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결국 그의 연주의 뿌리는 재즈에 두고 있다. 그는 1976년도에 첫 번째 솔로 앨범 ‘Bright Size Life’를 발매 하였고 그 이후 다양한 장르의 앨범을 발표,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팻 메스니 앨범 중 가장 재즈의 느낌이 강하게 묻어있는 앨범 중에서 한 곡을 선정하여 코드와 화성적 진행과 리듬, 스케일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재즈적인 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분석 곡인 ‘Solar’는 ‘Question And Answer(1989)’에 수록된 곡으로써 Miles Davis의 ‘Walkin’ (1954)’ 앨범에도 수록된 곡이다. 12마디 Blues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코드의 진행과 스케일은 Blues와는 다른 코드와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곡의 형식과 특이한 화성진행을 비롯한 스케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Solar’의 화성분석

‘Solar’의 화성분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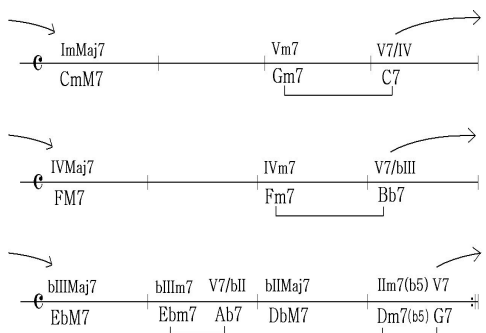


Fig. 1. Analysis Harmony Of Solar

그림1 예시와 같이 이 곡은 기본적으로 블루스(Blues)의 12마디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코드의 진행은 블루스의 코드 진행과 달리 확장된 형태의 진행을 하고 있다. Key는 Cm이고 Modal Interchange기법을 사용 하였다. 다섯 번째 마디에서 C Ionian Mode의 IVmaj7 코드를 사용하였고, 열한 번째 마디에는 C Phrygian Mode의 bIIImaj7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2 ‘Solar’의 스케일 분석

그림2는 기타 솔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코러스이다. Head의 앞부분이 C Melodic Minor Scale을 사용하였으므로 솔로 도입부에서부터 C Melodic Minor Scale을 사용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첫 번째 마디에서 C Natural Minor Scale을 사용하였다.[1]



Fig. 2. The First Solo of the Solar

기본적인 음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칫 밋밋해 질 수 있는 음들에 리듬을 Sequence하여 솔로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 세 번째 마디의 파·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앞의 마디에서 Cm7의 코드 톤인 ‘도’와 ‘b미’에 Staccato를 사용하여 자칫 밋밋해지기 쉬운 선율의 진행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네 번째 마디에서 ‘도’와 ‘시’, ‘b시’를 순서대로 배치함으로써 Double Chromatic Approach를 사용하였고 마지막 음인 ‘b솔’은 그 다음 마디의 ‘라’로 진행하는 Chromatic Approach이다.[2]

다섯 번째 마디에서는 F Harmonic Major Scale을 사용하여 특이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여섯 번째 마디에는 F Lydian Scale을 사용하여 두 박자를 지난 후에 ‘b시’와 ‘bb시’를 사용하여 그 다음 마디의 ‘b라’음으로 Double Chromatic Approach하였다. 일곱 번째 마디부

터 아홉 번째 마디까지는 Ebmaj7의 $\Pi m7-V7-I$ 진행이므로 일곱 번째 마디에서 F Dorian Scale을 사용하였고, 여덟 번째 마디에서 Bb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면서 텐션 9th 음을 시작으로 하여 ‘레’음 앞에 ‘#도’를 사용하여 Chromatic Approach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음인 ‘b도’는 그 다음 마디의 ‘b시’로 가는 Chromatic Approach이다.

아홉 번째 마디의 음들은 각각 Ebmaj7의 완전5도, 완전4도, 장3도, 텐션 9th 이고 리듬을 간단하게 4Beat로 배치하여 단순해진 리듬을 Staccato를 사용하여 각각의 음들을 강조하였다. 열 번째 마디와 그 다음 마디는 Dbmaj7의 $\Pi m7-V7-I$ 진행으로 열 번째 마디의 앞의 두 박자는 Eb Dorian Scale이고 세 번째 박자의 ‘b솔’음은 Ab7의 단7도, 네 번째 박자에 나오는 ‘b파’는 텐션 b13th이므로 Ab Altered Scale을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고, Ab Mixo- b9th, b13th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Whole Tone Scale에도 b13th음이 있으므로 Whole Tone Scale을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3]

열한 번째 마디에서는 두 번째 음인 ‘b미’음 앞에 ‘레’음을 사용하여 Chromatic Approach하였고, 나머지는 세음은 Db Major Scale을 그대로 하행하여 그 다음 마디와 연결하고 있다. 마지막 열두 번째 마디의 첫 음과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을 Chromatic Approach로 연결하였고, G7 코드 가 나오는 세 번째 음인 ‘도’는 액센티드 논 코드 톤(Accented Non Chord Tones)이라고 본다.



Fig. 3. The Second Solo of the Solar

그림3은 두 번째 솔로부분이다. 첫 번째 마디에서는 코드 톤인 Root와 단3도의 음만 사용하여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첫 음인 ‘b미’에 Staccato를 하여 강한 인상을 주면서 나머지 음들을 엇박자에 배치하여 리듬에 변

화를 주었다. 두 번째 마디의 첫 음과 두 번째 음은 각각 텐션 11th와 9th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표현하였고 다시 코드 톤으로 진행함으로써 안정감을 찾고 있다. 세 번째 마디에서는 두 번째의 음인 ‘b미’가 사용 되었으므로 G Phrygian Scale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마디의 두 음들은 그 다음 마디에 첫 음인 ‘라’로 진행하는 Scale Approach이다.[4]

다섯 번째 마디와 여섯 번째 마디는 첫 음인 ‘라’와 세 번째 박자에 사용된 ‘시’를 보고 F Lydian Scale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에 사용된 ‘시’음은 앞의 마디에 사용된 ‘시’와 같은 음이지만 이 마디에서는 단순한 Chromatic Approach로 사용되었고, 마지막 박자에 있는 ‘시’는 그 다음 마디의 Bb7 코드의 텐션 b9음을 Anticipation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에 사용된 ‘시’는 똑같은 음이지만 각 마디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다른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 이는 연주자의 의도적인 사용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 마디의 마지막 박자의 음들은 그 다음 마디의 코드 톤으로 진행하는 Chromatic Approach이며, 아홉 번째 마디에서는 단순히 코드 톤인 세 개의 음만 사용함으로써 그 뒤에 나오는 Note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열 번째 마디는 Eb Dorian Scale과 Ab Mixo-Lydian Scale을 사용 하였고, 열한 번째 마디에서는 Double Chromatic Approach를 사용하여 Chromatic한 느낌을 내면서 코드 톤인 ‘b라’로 진행 하였는데, 이 ‘b라’에 액센트(Accent)를 줌으로써 Chromatic에서 코드 톤으로 진행 하는 것을 강조 하였다. 열두 번째 마디에서는 그 앞의 마디에서 사용한 Double Chromatic Approach를 방향을 바꾸어 하행함으로써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5]



Fig. 4. The Third Solo of the Solar

그림4는 기타 솔로의 세 번째 코러스이다. 코드 톤인 ‘도’와 ‘b미’를 첫 박자와 두 번째 박자에 배치하여 Staccato로 리듬을 강조하였고, 세 번째 박자에 텐션 11th와 9th를 사용하여 텐션의 느낌을 표현한 뒤에 코드 톤인 ‘솔’로 진행하여 안정된 느낌으로 해결 하였다. 세 번째 마디는 G Phrygian Scale을 사용하여 Mode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 네 번째 마디에서는 ‘b레’를 사용하였으므로 C Mixo-b9, b13 Scale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b13th 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코드 톤인 ‘도’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로 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마디에서는 코드가 Fmaj7인데 반해 F Melodic Minor Scale을 사용함으로써 여섯 번째 마디까지 두 마디 동안 마이너 스케일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Melodic Minor Scale은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케일이기 때문에 흔히 ‘Jazz Minor Scale’이라고도 부른다.[6]

여섯 번째 마디의 마지막음인 ‘bb시’는 그 다음 마디의 첫 음인 ‘b라’를 향한 Chromatic Approach이고 일곱 번째 마디는 코드는 Fm7이고 스케일은 그 앞의 두 마디와 같이 Jazz Minor Scale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여덟 번째 마디는 Bb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박자 마지막음을 Root인 ‘b시’에 액센트를 주어 강한 느낌으로 앞에서부터 이어진 Lick을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디의 세 박자에서부터 아홉 번째 마디의 마지막 박자까지 쉼표를 사용하여 Lick과 Lick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것은 재즈 연주자들의 Improvisation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로 Scale과 Lick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여 공간을 듬으로써 쉼표 자체를 연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열 번째 마디의 Ebm7에 사용된 스케일은 재즈 마이너 스케일의 화성 안에 있는 7개의 모드 중 하나로 ‘리디안 오그텐티드(Lydian & Spanish Phrydian)’라고 한다. 그 뒤의 Ab7에서는 단순히 Ab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여 하행 하였고 그 다음 마디의 Dbmaj7의 ‘b라’로 진행하여 Lick을 마무리 하였다.[7]

그림5는 기타 솔로의 네 번째 코러스이다. C Harmonic Minor Scale로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다. 마지막 박자에 텐션 11th인 ‘파’를 사용해 긴장감을 주고 있고 그 다음 마디의 첫 번째 음인 ‘파’사이에 ‘미’를 네이빙링 노트(Neighboring Note)로 사용하여 그 뒤에 나오는 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하였다. 두 번째 마



Fig. 5. The 4th Solo of the Solar

디에서는 C Locrian Scale를 사용하여 어둡고 불안정한 느낌을 표현한 후에 마지막 박자에서 코드 톤인 ‘b미’로 해결하여 안정감을 주었다. 세 번째 마디에서도 G Locrian Scale을 사용하여 다시 어둡고 불안정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다음 마디인 C7에서는 ‘도’앞에 ‘시’음을 사용하여 Chromatic Approach하였고 텐션 13th인 ‘라’음 앞에 ‘b솔’을 배치하여 Chromatic Approach하였다.

다섯 번째 마디와 여섯 번째 마디의 Fmaj7에서는 코드가 밝은 느낌을 표현하는 메이저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네 마디와 같이 Locrian Scale을 사용하여 어둡고 불안정한 느낌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F Locrian Scale). 그 다음 마디인 Fm7에서는 Chromatic Approach를 사용하여 선율의 라인을 매끄럽게 연결 하였다. 그 다음 마디의 Bb7의 첫 박자와 두 번째 박자는 팻 메스니가 연주를 할 때 손버릇처럼 자주 사용하는 연결된 두 음을 합쳐서 통째로 Chromatic Approach를 하여 다음 음인 코드 톤으로 연결 한 것인데, 특별히 어떤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기타리스트만의 특이한 손버릇에서 나오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마디의 두 박자는 ‘라’음의 사용으로 보아 Eb Lydian Scale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는 그 앞의 마디에서 사용된 기법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열 번째 마디부터 열두 번째 마디까지는 코드 톤 위주로 단순한 리듬을 표현함으로써 그 앞에서 바쁘게 이어져 온 스케일과 음들을 정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8]

그림6은 첫 번째 마디의 첫 음을 Avoid Note인 ‘b라’음을 사용하여 Anticipation하였고 나머지 음들은 코드 톤을 순서대로 상행하였다. 두 번째 마디는 세 번째 박자에서 텐션 11th인 ‘파’음을 강조하여 텐션의 느낌을 강



Fig. 6. The 5th Solo of the Solar

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 마디에서는 ‘라’와 ‘도’, ‘b미’를 사용하였으므로 G Aeolian Scale이다. 네 번째 마디에서는 C7 코드에서 코드 톤을 사용하면서 텐션 9th인 ‘#도’를 사용하였으므로 C Mixo- b9, b13이라고 할 수도 있고, C Combination Of Diminished Scale이라고도 볼 수 있다. 코드 톤만 하행해서 자칫 밋밋해 질 수도 있는 선율에 ‘#도’음을 중간에 넣음으로써 약간의 긴장감을 표현하였다. 다섯 번째 마디는 마지막 박자에서 ‘솔’과 ‘b솔’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 마디인 ‘파’까지 연결하여 Double Chromatic Approach하였고, 여섯 번째 마디는 첫 박자의 두 음은 F Lydian Scale이고 두 번째 박자의 두 음은 F Harmonic Major Scale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에서는 F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여 아주 독특한 사운드를 표현하고 있다.[9-11]

일곱 번째 마디는 첫 박자의 두 음은 F Lydian Scale이며, 두 번째 박자는 ‘b레’에서 ‘레’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는 F Phrygian Scale이다. 한 마디 안에서 박자마다 다른 Mode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여덟 번째 마디는 ‘미’에서 ‘b미’, 코드 톤인 ‘레’로 진행하여 Double Chromatic Approach하였다. 아홉 번째 마디에서는 코드가 Ebmaj7이므로 Ionian Scale이나 Lydian Scal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의외로 ‘b레’음을 사용하여 Eb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여 색다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열 번째 마디의 Ebm7에서는 bVI도인 ‘시’음을 사용하였으므로 팻 메스니가 자주 사용하는 Harmonic Major Scale이라고 볼 수 있다.

열한 번째 마디의 처음 두 박자는 ‘솔’을 첫 음으로 사용하였으므로 Db Lydian Scale이다. 세 번째 박자의 첫 음인 ‘레’를 봐서 Db Phrygian Scale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박자는 ‘라’에서 ‘b라’로 Chromatic Approach하였다. 열두 번째 마디는 Dm7b5 코드의 두 박자는 D Locrian Scale이고, 첫 음인 ‘#파’는 그 다음 음인 ‘솔’로 Chromatic Approach하였다.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는 G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면서 Double Chromatic Approach하였다.[12]



Fig. 6. The 6th Solo of the Solar

첫 마디인 Cm7에서 이 마디 전체를 C Lydian Scale을 사용하면서 첫 음인 ‘미’와 ‘b미’, ‘레’까지 Double Chromatic Approach하였다. 마이너 코드에서 Dorian Scale이나 Phrygian Scale, 또는 Aeolian Scal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메이저 코드에 주로 사용하는 Lydian Scale을 사용함으로써 마디 전체의 분위기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솔로에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팻 메스니 연주의 색깔이라고 표현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마디에서는 C Phrygian Scale을 사용하였고, 세 번째 박자에서 Chromatic Approach하였다. 세 번째 마디인 Gm7에서는 첫 번째 박자의 ‘b시’와 ‘b솔’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G Harmonic Minor Scale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박자는 ‘라’와 ‘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G Dorian Scale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박자의 첫 음인 ‘#솔’은 G Phrygian Scale이며, 나머지 세 개의 음은 G Melodic Minor Scale이다. 네 번째 마디의 두 개의 음인 ‘#파’와 ‘#라’는 C Lydian b7th Scale이다. 다섯 번째 마디와 여섯 번째 마디인 FMaj7에서는 코드 톤과 ‘미’음을 사용하였으므로 평범한 Lydian Scale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마디인 Fm7에서는 ‘b미’와 ‘레’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F Dorian Sca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마디인 Bb7에서는 Bb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여 간단한 리듬을 만들면서

그 다음 마디의 첫 음인 ‘레’를 Anticipation하고 있다. 세 번째 박자에서 ‘b시’를 시작으로 Eb Mixo-Lydian Scale로上行하여 그 다음 마디로 연결하였고, 열 번째 마디의 두 번째 박자까지 같은 스케일인 Eb Mixo-Lydian Scale로 하행하여 아홉 번째 마디의 세 박자부터 열 번째 마디의 두 박자까지를 마치 한 마디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열 번째 마디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는 Ab Mixo-Lydian Scale이다. 열한 번째 마디는 마디 전체를 Db Ionian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세 번째 박자에서 네 번째 박자까지 Double Chromatic Approach하였다. 열 두 번째 마디인 Dm7b5에서는 D Locrian Scale을 사용하고 있고, G7에서는 G Mixo-Lydian Scale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고 있다.

3. 결론

본 논문은 팻 메스니의 앨범 중 재즈의 느낌이 강하게 묻어있는 앨범인 ‘Question And Answer(1989)’에 수록된 ‘Solar’를 선정하여 코드의 화성적 진행과 리듬, 스케일을 분석하였다. 이 곡의 스케일을 분석함으로써 데뷔 이후 현재까지 재즈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장르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는 그가 얼마나 독창적인 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팻 메스니의 즉흥연주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즉흥연주 기법과는 달리 한 곡에서 많은 Mode의 스케일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연주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든 경우의 수를 사용하여 아주 다양하게 스케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연주자들이 새로운 재즈 스타일을 창조해 내야 할 것이며, 재즈가 대중 속에 살아있는 음악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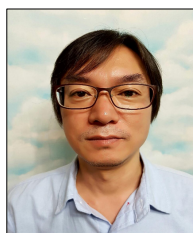
[1] Barrie Nettles, "Harmony," Berklee College Of Music, 1992
 [2] Buck Brown, "Jazz Chops For Guitar," Alfredpub, 2001.
 [3] By Daniel Gilbert & Beth Marlis, "Advanced Guitar Soloinng," Hal-Leonard, 2002.
 [4] Jean Marc Belkadi, "Advanced Scale Condepts and Licks," 1999.
 [5] Jean Marc Belkadi, "Exotic Scales & Licks," Hal-Leonard,

2005.

[6] Tom Kolb, "Modes For Guitar," Hal-Leonard, 2001
 [7] Jean Marc Belkadi, "Diminished Scale For Guitar," Hal-Leonard, 1997.
 [8] Stan Smith, "Jazz Harmony On The Guitar," Hal-Leonard, 1999.
 [9] Min-Geun Kim, "A Study of Fusion Jazz Guitarist Pat Metheny's Scale," KAIS the Autumn Conference, 2015.
 [10] S. W. Jang, M. H. Shim, O. H. Cho, "A study about corelation between Hypersonic sound of nature and Alpha wav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3, no. 2, pp. 69-74, Dec. 2013.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3.12.01>.
 [11] W. H. Lee, H. D. Lee, M. J. Bae, "A Study on Sound for Autism using Acoustics Parameters and Ratio of Brain-wav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8, pp. 25-32, Aug.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3.12.01>“
 [12] Min-Geun Kim "A Study of Fusion Jazz Guitarist Pat Metheny's Scale - Missouri Uncompromised," KAIS the Spring Conference, 2016.

김민근(Min-Geun, Kim)

[정회원]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부산 여자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 대학교 아동음악과 외래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예술종합공서바토리 외래교수
- 2011년 8월 ~ 현재 : DMS뮤직아카데미 원장

<관심분야>
 실용음악, 기타(Guitar), 재즈

조태선(Tae-Seon, Cho)

[종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5월 : 한국문화예술융합협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기수협회 학술위원장
- 2016년 9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